



제10호 / '16.6.24(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사측 제시안 없어 교섭 결렬!

사측 성의있는 안 준비되면 교섭 재개할 예정

5분 만에 끝난 지부교섭

23일 대한이연에서 열린 10차 교섭이 5분 만에 끝났다. 사측은 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로 무성의하게 교섭을 끝냈다. 10차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안을 제시했던 사측은 이 날 추가적인 안을 준비하지 않고 교섭자리에 나왔다.

김정태 지부장은 “사용자가 모여서 안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당분간 안이 준비될 때까지 교섭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했다.

사는 일반해고를 해야할 이유가 있나? 사용자의 의지 문제다. 사용자가 일반해고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는 사용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잠시 냉각기를 가지며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 기간동안 사용자가 성의있는 안을 준비해오면 다시 교섭을 열기로 했다. 무성의한 사측의 태도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마저도 무시한다면 올해 임단투는 치열한 투쟁이 될 것이다.

사용자 의지만 있으면 요구안 해결된다

올해 지부교섭 요구안 중에 사측이 어려움을 토로할 내용이 없다. 임금인상안을 빼면 나머지 요구안은 모두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 취업규칙을 단협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동의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재를 은폐하지 말고 산재 복귀 시 적절한 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일반해고를 위한 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합활동 총회와 회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회사별로 의견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여전히 사측은 회사 규모에 따라 요구안 수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고 한다. 일반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회사 매출 규모랑 관계가 있나? 매출 규모가 큰 회사는 일반해고 안해도 되는데, 매출규모가 작은 회

중앙교섭도 결렬

한편 21일 열린 중앙교섭도 결렬됐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비운 후에 땅이 굳는다지만 우리는 아픔 없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랐다. 새로운 안이 없다면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15만 조합원이 중앙교섭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안만 나왔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6월 29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30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선다. 그동안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해온 사용자들에게 15만 금속노조의 투쟁을 보여줄 때가 왔다.

10차 교섭 속기록

준비할 시간 줄테니 제시안 준비해오라

노 : 날씨가 무척 더워졌다. 더워지니까 많이 지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지부교섭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늘도 사용자가 안을 준비해주었다면 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사 : 가장 오랫동안 있는 회사 대표인 것 같다. 대한이연도 상당히 어려운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고민이 많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지회는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한계점에 왔다. 지부도 교섭에서 갈등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긴박한 업체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 잘못되는 경우는 노나 사나 모두 공멸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같이 현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 : 나름대로 모여서 일치된 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워낙 이견이 커서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 : 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오늘 교섭은 무의미한 것 같다. 우리는 여름휴가 전에 타결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인데 사용자가 안을 제출하지 못하니,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사용자가 모여서 안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다.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사용자가 안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면 실무 통해서 교섭을 속개하도록 하겠다.

사회 : 차기 교섭은 실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

※ 매주 (목) 지부교섭이 열리는 날
재벌개혁 실천단 활동을 병행합니다.



(6/23 신탄진IC 선전전)